

IFES

뉴스레터

2025년 4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IFES



**뉴스레터
31호(4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교수진 연구활동	10
3. IFES 브리프 및 포럼	14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18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22
2. 언론 속의 IFES	23
3. IFES 도서관	24
4. 안내사항	25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진 연구활동

IFES 브리프 및 포럼

북한·국제 정세 동향



1. 학술활동

가. 제4차 삼청포럼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3월 6일 오후 7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전 주미대사)가 “트럼프 발 무역전쟁: 우리의 대응은?”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1기 집권 시기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초빙석좌교수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재점화된 무역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 “이슈별 대응보다는 윈-윈(win-win)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우리나라(한국)가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자력, 가전 등 한국이 강점이 있는 산업 분야에 미국도 관심이 있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우위 산업 품목은 오히려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현지 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기술적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교수는 통상 분야 법치주의와 ‘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 부활 모색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EU, 캐나다, 호주 등과 연대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표를 마친 후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 및 대학원생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 YouTube영상 보러가기



※ 발표전문 보러가기



나.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키누가사캠퍼스 방문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 교수진 등 5명은 3월 29일(토) 오후 2시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키누가사캠퍼스를 방문하여 일본측 연구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김광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조진구·정재욱·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현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직원(도서관 사서) 및 미즈노 나오키 교토대학 명예교수, 이타가키 류타 도지사대학 교수, 나카도 사치오·안자코 유카 리츠메이칸대학 교수, 모리도모오이 세쓰난대학 교수, 장영주 리츠메이칸대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범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의 근본적인 목적은 적의 개념화와 적대 이미지 형성, 발전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생존에 위협적인 내부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상태로서의 전쟁 연출을 통한 ‘국가재정비(domestic renewal)’ 전략 차원에서 설명했으며,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2024년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들을 통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교전 중인 적대 국가 관계’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 교수들과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본내 한반도연구, 남한 내 북한연구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일본 칸사이지역 연구자들 간 연구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 학술지(국·영문) 발간

1) 『ASIAN PERSPECTIVE』 Vol. 49, No. 1, WINTER 2025 (2025. 3. 1.)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98년 학술진흥재단(現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 존스홉킨스대 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 주요내용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존스홉킨스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하고 Project Muse (<https://muse.jhu.edu/issue/54346>)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Asian Perspective' 49권 1호(2025년 겨울호)가 발간되었다.

이번 호에는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의 강대국 경쟁에 관한 특별호 1부가 수록되어 있다.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구의 초점으로 삼은 이번 특집호의 논문은 국제 관계에서 '강대국-약소국'의 틀을 넘어 국가와 준국가 모두를 현대 강대국 경쟁의 중요한 행위자로 재조명했다.

이 글들은 국제관계학에서 국가와 준국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했다. 1부에서는 비교 유형론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싱가포르,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 팔라우, 대만,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연방 등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네가지 사례 연구를 다루었다.

특별호 논문 외에도 일본의 환경 규범에 관한 연구, 터키 내 중국 투자 기업의 노동 불안, '지정학적 3자 문제'로서 미-중-러 관계의 역학 관계에 대한 논평 등이 실려 있다. 심포지엄 섹션에서는 데이비드 M. 램튼의 저서 '살아있는 미중 관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 된다: 냉전에서 냉전으로(로우먼 앤 리틀필드, 2024).

과거 특별호를 포함한 모든 과월호(1977년부터 2024년까지)는 Project Muse 사이트 (<https://muse.jhu.edu/journal/7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ASIAN PERSPECTIVE』 Vol. 49, No. 1, WINTER 2025 목차〉

Special Issue on Great Power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and Eurasia – Part 1

Guest Editor: Brian C. H. Fong

Great Power Competition Across States and Quasi-States:

Toward a Comparative Typology

Brian C. H. Fong

Great Power Competition in Small States:

The Case of Singapore

Chong Ja Ian

Great Power Competition in Associated States:

The Cases of Micronesia, Marshall Islands, and Palau

Denghua Zhang

Great Power Competition in Contested States:

The Case of Taiwan

Wu Jieh-min

Great Power Competition in Territorial Autonomies:

The Case Study of Guam and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

Grace C. Donaldson and Kevin K. W. Ho

Environmental Norms and Japan

Contested Environmental Norms:

Cultural Narratives and Animal Protection in Modern Japan

Michal Kolmas

Chinese Investment in Europe

Labor Unrest in Chinese-Invested Enterprises in Turkey:

Local Dynamics and Global Implications

Burak Gürel, Baran Şahinli, and Deniz Tuzcu

COMMENTARY

The Geopolitical Three-Body Problem:

US-China-Russia Dynamics and the New Reverse Kissinger Strategy Involving Russia and North Korea

Kyung-tae Min

BOOK SYMPOSIUM

Book Symposium on David M. Lampton. 2024. *Living U.S.-China Relations: From Cold War to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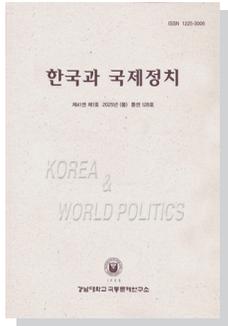
Deborah Brautigam

Thomas Fingar

Zha Daojiong

David M. Lampton

2) 『한국과 국제정치』 제41권 제호 2025년 (봄 특집) 통권 128호 (2025. 3. 31.)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매년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 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 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제41권 제1호, 2025년 (봄 특집) 통권 128호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 차〉

〈특집〉 북중관계와 국제정치이론

객원 편집인: 이희옥

-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중정책: 대중 자율성을 중심으로**
 - 정해인 (성균중국어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적극적 완충국가론과 북중관계 변화**
 -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
- **존재론적 안보와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북중‘전략적 협력’**
 - 신종호 (한양대학교 ERICA 글로벌문화통상학부 부교수)
- **북·중 관계의 내쉬균형 적용과 전략적 소다자주의**
 - 홍석훈 (국립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 **새로운 안보 딜레마 개념과 북·중·미 핵경쟁 사례**
 - 조성민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북핵 문제와 중국의 전략적 내러티브: 대북정책 정당화와 국제안보질서의 재구성**
 - 강수정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김정은·시진핑 시기 외교적 수사와 북중관계의 전략적 상이성**
 - 김규범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 객원연구위원)
- **김일성의 세차례 한국전쟁 획책과 중국의 동맹 제지: 지정학적 구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 『한국과 국제정치』 2025년 (봄 특집) 통권 128호 주요 내용 >

정해인 박사, 이희옥 교수는 북한이 왜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에도 핵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중국의 정책목표에 도전하는 행태를 보이는가에 주목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손실/이익 상황에서의 위험감수 성향을 설명하는 전망이론과 외부 세계에 대한 역사적 불신을 반영한 피포위의식 논의를 결합했다. 특히 북한의 피포위의식은 미국과 같은 서방세력은 물론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나타나며, 실제로 북한의 국가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의 전략적 선택 변화를 준거점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2012~2017년/ 2018~2019년/ 2020~2024년)로 분석했다.

김한권 교수는 북중관계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부침을 거듭해온 북중관계의 역사와 더불어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완충국가로서의 전략적 가치 및 위성-완충국가, 중립-완충국가, 적극적 완충국의 구분에 따른 변화를 분석했으며, 또한 북한은 과거 냉전시대에는 중소분쟁 시기에 중국과 소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외교'를 실행하고,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 및 북·러 협력 강화를 활용하는 '제3세력 전략'을 통해 김씨 체제의 생존과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완충국가'의 위치를 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중호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이 어떠한 내재적 동인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존재론적 안보 이론을 통해 분석했고, 냉전 시기 중국과 북한은 이념적 유대와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나, 탈냉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국제질서 재편 등으로 양국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양면성을 보이며 불안정해졌다고 설명하면서 미중 전략경쟁, 북한의 핵 정체성 강화, 그리고 중국의 강대국 정체성 유지라는 상호 보완적 요인이 북중관계를 단순한 동맹을 넘어 정체성 유지와 실존적 안정 확보를 위한 복합적 협력으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훈 교수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오물 풍선 투척 등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6월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대중정책을 '내쉬균형(Nash Equilibrium)'과 소다자주의 외교정책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대중국 정책 전망을 도출하여 역내 국제정세의 정책적 함의점을 찾고자 했다. 또한 북한이 기존 북중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북러협력 관계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조성민 교수는 기존의 안보 딜레마 개념이 양자 관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수직적으로 고조되는 현상을 묘사했다면, 본 논문은 다자 간 관계에서 안보 딜레마가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패턴을 묘사했다. 중국 전략가들은 미국의 대북 조치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상호 불신과 전략적 계산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줬다. 이론적으로 새로운 안보 딜레마 개념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맥락에서 미-중 경쟁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완 설명했고, 방법론적으로 개념화(conceptualization)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념의 정교화가 이론 발전의 필수적인 선행 단계임을 논의했다. 정책적으로 한국의 외교 전략이 미-중 간 전략 소통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강수정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어떤 전략적 목표를 추구 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내러티브 이론을 바탕으로 체제 내러티브, 정체성 내러티브, 정책 내러티브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동심원 구조의 분석 틀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국의 전략적 내러티브가 체제, 정체성,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며, 대북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그것이 국제안보질서 및 거버넌스에 미치는 함의를 규명하여, 국제안보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조명했다.

김규범 박사는 김정은·시진핑 집권기 북한과 중국이 주고받은 외교적·전략적 언어를 분석했다. 연구 범위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으로 설정했으며, 북중 관계를 갈등기, 관계 개선기, 현상 유지기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외교적 수사(rhetoric)와 내러티브(narrative)의 변화를 추적했고, 분석 결과 국제 및 지역 정세와 양국 관계의 변화에 따라 외교적 수사와 내러티브가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하기를 기대하는 반면, 북한은 ‘공포의 균형’ 유지와 강대국 간 갈등 활용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을 강조했다.

손대권 교수는 냉전기 김일성의 세 차례 한국전쟁 획책(1950년, 1965년, 1975년)에 대한 중국의 동맹 제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제지국과 피제지국이 제3국가와 형성하고 있는 전략적 구도가 동맹 제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 결과는 제지국과 피제지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이 동맹 제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줬고, 동시에 이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중국의 대북 제지 능력을 제약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 교수진 연구활동

가. 학술활동

김상범 교수

- 1) Book review,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SSCI)
 - 일자: 2025. 3월말
 - 내용: Tricontinentalism and the Latin American Revolution, 1959-1970 by Moe Talyor

조진구 교수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2025 한일 평화통일포럼' 발표
 - 일자/장소: 2025. 3. 27.(목) ~ 29.(토) / 일본 오사카 제국호텔
 - 내용: 한일 수교 60주년, 성찰과 미래비전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한미동맹재단 주최 '브라운 주한 미군사령관 초청 포럼' 토론
 - 일자/장소: 2025. 3. 26.(수) / 국방 컨벤션
 - 내용: 미군의 global posture review 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계속 강화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2)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Mainelli 런던 상공회의소장 초청 포럼' 토론
 - 일자/장소: 2025. 3. 27.(목) / 롯데호텔
 - 내용: 트럼프 출범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한국일보 주최 '제13기 한국아카데미' 개강식 특강
 - 일자/장소: 2025. 3. 11.(화) / 롯데호텔
 - 내용: 트럼프의 귀환, 위기인가 기회인가
- 2) 이언주·차지호·위성락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 좌장
 - 일자/장소: 2025. 3. 28.(금) / 의원회관
 - 내용: AI 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대아세안·인도 외교활동과 협력강화 대책

이상만 초빙교수

- 1) 연세대-산동대 주관 '연세산동포럼' 전체 사회 (중국어)
 - 일자/장소: 2025. 3. 7.~ 3. 9. / 중국 산동대학
 - 내용: 트럼프2기 정권 출범과 동북아정세 변화 전망

최영준 초빙교수

- 1) 주한 이탈리아 외교단 면담
 - 일자/장소: 2025. 3. 24.(월) / 포시즌즈 호텔
 - 참석자: 에밀리아 가토(Emilla Gatto) 주한 이탈리아 대사, 니콜라 미나시(Nicola Minasi) 이탈리아 외교부 위기관리국 국장,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협력실장

< 면담 주요내용 >

- 이탈리아 측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이후 북한 및 한반도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북한 내부동향과 북중, 북러 관계, 트럼프 2기 출범 후 북미 관계 및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 또한, 이탈리아 측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역사와 연구 업적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전령현 초빙교수

- 1)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제1차 글로벌협력포럼' 발표
 - 일자/장소: 2025. 3. 28.(금)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 내용: 중국의 일국양제와 통일과도기 법제에의 시사점

나.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 1) YTN 뉴스 인터뷰 (2025. 3. 1. 토 / 3. 4. 화 / 3. 22. 토)
 - 내용: 주한 우크라 대사, 한국에 대화 요청... '북한군 포로' 귀순? (3. 1.)

2. 교수진 연구활동

- 내용: 북 김여정, 미 항모에 "전략적 선택 검토" ...군 "핵 망상 버려야" (3. 4.)
- 내용: 김정은과 포옹하고 '푸틴 친서' ...쇼이구 '1박2일' 방북 마무리 (3. 22.)

- 2) 경향신문 인터뷰 (2025. 3. 4. 화 / 3. 12. 수)
 - 내용: 미 핵항모 전개에...북 김여정 "우리도 억제력 행사 기록 갱신할 수밖에" (3. 4.)
 - 내용: '전투기 오폭' 북한 첫 논평...“폭탄이 국경선 넘었다면 사태 어떻게 변했겠나” (3. 12.)

- 3) KBS 9시 뉴스 인터뷰 (2025. 3. 15. 토)
 - 내용: 인도·파키스탄과 함께 언급...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 4) 채널A 뉴스 인터뷰 (2025. 3. 18. 화)
 - 내용: 美 “동맹국에 더 많이 요구”...또 한국 언급

- 5) CBS 노컷뉴스 인터뷰 (2025. 3. 21. 금)
 - 내용: '더티15'에도?...한국 향하는 '트럼프의 눈'

- 6) 뉴스1 특별 기고 (2025. 3. 28. 금)
 - 내용: “북한, 금융제재 효과 떨어뜨리려 가상 자산 탈취에 집중”
 - * (기고 전문)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734178>

이병철 교수

- 1) 중앙일보 인터뷰 (2025. 3. 5. 수 / 3. 14. 금 / 3. 17. 월)
 - 내용: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꺼내면...준비 안된 한국 안보 직격타 (3. 5.)
 - 내용: 美 또 대놓고 한국에 의구심...“혼돈의 한국, 한미일 관계 후퇴” (3. 14.)
 - 내용: 정부 "美 민감국가 지정, 외교정책 아닌 보안상 문제" (3. 17.)

- 2) 신경제신문 칼럼 기고 (2025. 3. 24. 월)
 - 내용: '미국 없는 한국'의 안보를 고려할 때이다
 - * (칼럼 전문) <https://www.theneweconomy.kr/news/articlePrint.html?idxno=13292>

- 3) AFP 인터뷰 (2025. 3. 28. 금)
 - 내용: 트럼프, 미국 동맹국들에게 핵무기 논의 재개 촉구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세계일보 인터뷰 (2025. 3. 5. 수)
- 내용: “(세상을 보는 창) 트럼프 2기 힘의 지배 맞서 한.미 통상 안보 윈윈 전략 찾아야”
- 2) 한국일보 칼럼 기고 (2025. 3. 24. 월)
- 내용: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한미 관계 '3대 책략'
* (칼럼 전문) <https://v.daum.net/v/20250324000008613>

곽태환 초빙석좌교수

- 1) 통일신문 칼럼 기고 (2025. 3. 7. 금)
- 내용: 한국의 핵무장 찬반론에 대한 재평가
* (칼럼 전문)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90>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중앙선데이 인터뷰 (2025. 3. 8. 토)
- 내용: 트럼프 쇼크, 전문가가 본 한국의 전략

이상만 초빙교수

- 1) 중국 국무원 운영매체 '중국망' 기고 (2025. 3. 7. 금)
- 내용: 신기술 혁신, 중국식 현대화 과정 추진하는 토대
* (기고 전문) http://korean.china.org.cn/2025-03/07/content_117751671.html

다. 펠로활동

김연희 전 펠로

- 1) 서강대학교 로올라 국제대학 게페르트국제학부 강사 임용

3. IFES 브리프 및 포럼

가. IFES 브리프 (4건)

IFES브리프(요약)

핵 잠재력에 대한 소고(小考)

2025. 3. 4.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핵연구센터장)

(문제제기)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고도화 탓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무장(핵 잠재력 확보)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철군(감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저돌적 압박이 현실화 된다면 미국의 동맹 기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는 급격히 약화될 것이며, 독자적 핵무장 또는 핵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飛騰)할 것이다.

(한국의 핵 잠재력 평가) 21C에 접어들면서 핵무기 개발 관련한 기술과 경제적 환경은 상당히 발전적으로 변화했다. ①반도체 제조 능력: 핵무기 개발 잠재력을 가능하는 중요한 지표 ②고급 AI 및 슈퍼컴퓨터 활용 능력: 오늘날 핵무기 보유국과 잠재적 핵무기 개발국가들은 실제 핵실험보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요함. ③탄소 복합소재 및 첨단소재 산업: 21C에는 핵탄두 소형화 및 미사일 개발과 직접 연관됨. ④무인기 및 우주발사체 개발 능력: 장거리 핵운반체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음. ⑤사이버 능력 및 정보전 수행 역량: 핵개발을 은폐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핵 관련 기술을 절취하는 것이 가능해졌기에 핵 관련 연구소와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사이버 방어 역량도 중요함. ⑥3D 프린팅 및 정밀 제조 기술: 원심분리기 부품, 폭발 렌즈 설계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핵개발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북한이 지금까지 6차 핵실험과 수백 번의 기폭실험, 수십 차례 미사일 및 위성체 발사 등 핵무력 완성을 향해 보여준 집요한 반복과 변주를 통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 하기는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북핵 대응책 강도(強度)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Vipin Narang은 핵무기 개발 경로를 '헤징', '속전속결', '강대국 지원', '숨기기'로 분류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경로는 '헤징' 또는 '미국의 지원'이다. 한국의 핵 잠재력과 핵무장은 북한 핵무력을 강화하는 촉진제이다. 그렇다면 핵 잠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고서 핵 잠재력 용어만 중구난방(衆口難防) 만화방창(萬化方暢)하게 공론장에서 거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제되지 않은 핵 잠재력 운운이 자칫 발화자(發火者)의 의도와 무관하게 듣는 이(聽者)에게 곧바로 핵무장 등식(等式)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헤징이든, 미국의 후원 형태이든, '핵 비확산 모범국'임을 자처하고 싶으면 한국은 핵 잠재력 확보를 '서둘지 말고 조용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브리프(요약)

북한의 '지방발전 20X10정책' 한계와 과제

2025. 3. 6. 전령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북한의 '지방발전 20x10정책'은 김정은 시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중앙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에 제한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중적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신포시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과 시·군 간 경쟁체제 도입은 기존의 하향식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려는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국의 지방발전 모델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법률 제정, 지방정부 권한 이양, 적극적 대외 개방을 통해 발전을 도모한 반면, 북한은 당의 철저한 통제 아래 내부 자원 활용과 제한적 경쟁만을 허용하며, 체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결국 이 정책의 성패는 자원·기술적 부족 문제 해결, 중앙과 지방 간 균형 유지, 경쟁체제의 부작용 방지 등에 달려 있다. 북한이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되, 자국의 체제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독자적 발전 경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브리프(요약)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중국의 대응

- 중국 14기 3차 양회 의미와 전망 -

2025. 3. 12.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2025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미중간 벌어지고 있는 제2의 무역 전쟁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글로벌 넘버2 국가인 중국의 대응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3. IFES 브리프 및 포럼

이번 양회의 화두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확대정책’,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민영경제의 활성화’ 등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내수부족, 지방정부 채무 증가, 부동산 불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중국경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특히 첨단과학기술 산업은 양회에서 강조된 혁신주도 성장전략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최우선 지원산업으로 선정하여 4조 위안(한화 800조원)의 천문학적 R&D 투자를 투입하는 핵심분야가 되었다. 항저우 6룡 같은 기술자립기업들은 중국 기업의 굴기(崛起)를 상징하며, 이들이 중국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중국을 자강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브리프(요약)

『미국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 주요 내용 및 함의

2025. 3. 31.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핵연구센터장)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3월 25일 공개한 『미국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에서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한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으로의 비화, 핵무기 사용 가능성, 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불안정, 더 대담해진 중국과 북한 등 미국의 전략적 리스크를 영속화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미국과의 종전 논의를 계속하는 데 관심이 있고, 부분적 휴전을 시험할 의지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북극에서의 경제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발판으로 그린란드에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3. IFES 브리프 및 포럼

그리고 올해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대만에 대해 더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북핵 지위 관련해서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지원을 얻기 위해 북한의 핵 지위(nuclear status)를 점점 더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포함된 것이 특기 할만하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나. IFES 포럼 (2건)

IFES브리프(요약)

No Signs of Favorable Conditions for U.S. - North Korea Nuclear Talks

2025. 3. 11. 곽태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IFES브리프(요약)

North Korean nukes; denuclearization is the answer

2025. 3. 21.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전 주미대사)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북한

-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발 (2. 22. 조선중앙통신)
 - “(핵무장력) 급속적·가속적 강화는 최근 더욱 횡포해지는 미국·추종국가들 군사적위협 대처 위한 현실적요구”
-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담화, “《다목적제재감시팀》은 불법적·비합법적·범죄적 유령집단” 비난 (2. 24. 조선중앙통신)
 - 한·미·일 등 11개국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2.19)에서 “북한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대처에 연대”, “모든 국가 제재 동참 촉구”한 것 관련
- 김정은 ‘김일성정치대학 80주년’ 방문 및 연설 (2. 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사상 무장이 군건설 중핵”, “군인, 무기, 사상을 무장력 3대 요소로 간주하는 새로운 견해” 피력
- 김정은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 현지지도 “현대전 실전경험 습득” 강조 (2. 26. 조선중앙통신)
 - 군사교육실태 요해, 인민군당위원회 및 군사교육기관 정책지도부서들 책임·역할 미진 지적
- 김정은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참관, “핵무력 임전태세 준비, 핵방패로 주권·안정 수호” (2. 28. 조선중앙통신)
- 김여정 담화 美 핵항모 한반도 전개 등에 반발 (3. 4. 조선중앙통신)
-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실태 김정은 현지요해 공개 (3. 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비할바없이 위력적인 함선들이 적대세력들의 악습화된 《포함외교》를 제압하는 핵강국의 강위력한 억제력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 안드레이 루덴코 러 외교차관 방북, 3.15 회담 진행 (3. 16. 조선중앙통신)
 - 최선희 北외무상-루덴코 러 외교차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

- 김정규 北외무성 부상-루덴코 차관 회담

“2024년 6월 역사적인 조로수뇌상봉에서 이룩된 합의들과 두 나라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쌍무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동하고 국제무대에서 호상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견해일치”

●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핵무력 질량적 갱신·강화할 것” (3. 17. 조선중앙통신)**

- “핵보유국지위는 그 누구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전,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의 위력한 수단으로 영존할것”

● **미사일총국 ‘최신형 반항공 미사일 무기체계’ 종합적 전투성능 검열 시험발사, 김정은 참관 (3. 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남포조선소 현지지도 “해군무력 강화 위한 능력확장·현대화” 주문 (3. 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서기장 접견 (3. 22.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공보문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능력” (3. 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5월 초 방러...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놓고 조율 (3. 26. 조선중앙통신)**

미국 / 일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

●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 군사 지원 전면 중단 (3. 4 로이터)**

● **우크라이에 군사지원 중단 트럼프, 대러 제재는 풀 준비 (3. 4. 동아일보)**

● **일본 “우크라 지원 계속...유럽과 아시아 안보 불가분” (3. 4. KBS)**

● **미·우크라, “30일 휴전 동의...정보공유·안보지원 재개” (3. 12.KBS)**

4. 북한·국제 정세 동향

< 일반 >

- 백악관, 트럼프 2기 첫 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완전 비핵화에 전념” (3. 11. 중앙일보)
- 트럼프, 한반도 담당 동아태 차관보에 디솜버 前 태국대사 지명 (3. 12. 연합뉴스)
-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또 언급…김정은 관계 재구축 시사 (3. 14. KBS)
- 주일 美대사 지명자 “일본과 미군 주둔비용 인상 논의할 것” (3. 14. 뉴스1)
- ‘민감 국가’에 한국 추가…동맹 간 신뢰 타격 우려 (3. 15. KBS)
- 美 “원자로 설계 SW 한국 유출 시도” … 민감국가 지정 배경 된 듯 (3. 18. 조선일보)
- 트럼프, ‘미 국방부’ 구조조정 검토… ‘주일미군, 나토’ 대상 (3. 20. KBS)
- 트럼프 2기, 美 핵항모 한반도 전개…올해 첫 한미일 해상훈련 (3. 20. 머니투데이)
- 美 국방수권법에 ‘민감 국가 보안 강화’ 규정 신설 (3. 21. 조선일보)
- 미군도 구조조정…주한미군 변화 촉각 (3. 21. 세계일보)
- 日 ‘통합작전사령부’ 출범…육·해·공 자위대 지휘 (3. 24. 아시아경제)
- 한·중·일 외교장관 “경제·통상 3국 협력 강화” (3. 24. 경향신문)
- 미 국가정보국장 “북한, 언제든 추가 핵실험 할 준비 돼있다” (3. 26. 한국일보)

중국 / 러시아

- 미-우크라 회담 파국에 타이완 긴장…“타이완 미래 모습 가능성” (3. 2. KBS)
- 러, 일본 외무상 입국금지…“대러 제재 보복 조치” (3. 4. 연합뉴스TV)
- 중국 2025년 양회 폐막…민생·경제 강조, R&D 80조원 투자 (3. 11. 경향신문)
- 중국 기자들 5년 만에 평양 복귀…관계 개선 손짓 (3. 12. KBS)
- 타이완, 첫 전쟁대비훈련…“훈련 → 침공 중국 전환작전 겨냥” (3. 17. KBS)
- 러 외무부 성명, 3.15 방북 회담서 “러북 최고위급 접촉 논의” (3. 18. 세계일보)
- 러 외무부 “북한 방문한 외무차관, 최고위급 접촉 일정 논의” (3. 18. 뉴스1)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안내사항



1. IFES 동정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변동사항

- 초빙교수 신규 위촉 (기간: 2025. 3. 1. ~ 2026. 2. 28.)
 - 이상만 초빙교수 (前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초빙연구위원 2명 신규 위촉 (기간: 2025. 3. 1. ~ 2026. 2. 28.)
 - 곽길섭 초빙연구위원 (원코리아센터 대표)
 - 안병민 초빙연구위원 (북한경제포럼 회장)

나. 일본 도쿄하대학 교수 및 학부생 17명 방문

- 일자/장소: 2025. 3. 6.(목) 10:30~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참석자: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북한연구센터장), 최경환 도쿄하대학 교수, 학생부 16명 등
- 내용: 이관세 소장은 환영인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협력관계로서, 젊은 학생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하며 금번 방문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배움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평가와 전망” 주제로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한 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극동문제연구소와 도서관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도서관 특수자료실 등을 견학하였다.



< 이관세 소장 환영인사 >



< 도서관 특수자료실 견학 >

2. 언론 속의 IFES

■ 제14차 삼청포럼 개최 결과 언론보도 (2025. 3. 7.)

국민일보, 뉴스1, CNB뉴스, 아시아경제, 뉴스프리존 등 11개 국내 언론사에서 『제14차 삼청포럼』 개최 내용을 보도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 “윈-윈 전략,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해야”



< 주요 기사내용 요약 >

(국민일보) 이임태 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6일 대학 내 평화관에서 제14차 삼청포럼을 열고 안호영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전 주미대사)가 “트럼프 발 무역전쟁: 우리의 대응은?”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 주미대사를 지낸 안 초빙석좌교수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재점화된 무역전쟁과 관련해 “이슈별 대응보다는 윈-윈(win-win)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한국이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자력, 가전 등 한국이 강점이 있는 산업 분야에 미국도 관심이 있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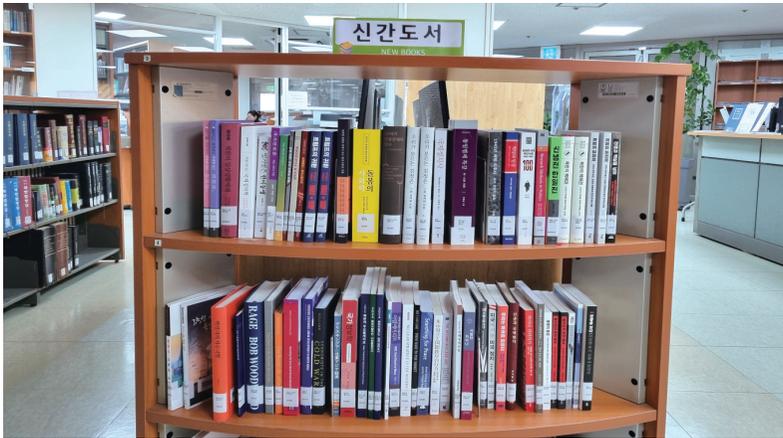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3. IFES 도서관

가. 신간 도서 안내

연구소 도서관은 연구자들이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4분기 중 신간 도서 26권을 입수하였다.



< 주요 신간 도서 목록 >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문화 이론:사회학적 접근	필립 스미스, 알렉산더	이학사	2025
資源と經濟の世界地圖	鈴木一人	PHP研究所	2024
국제정치사	Stephen A. Kocs	명인문화사	2025
북한의 핵패권: 사회주의 핵개발 경로와 핵전술 고도화	이춘근	인문공간	2024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2024
김정일 전집 60~63	김정일	조선로동당출판사	2024

나. 개방서가 운영 현황

연구소는 연중 매일 도서 나눔을 통해 연구자들이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2025.3월중 개방서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개방서가 운영 현황: △도서 기증 312권 △도서 나눔 265권

4. 안내사항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1. 학술지 소개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등재학술지를 유지하며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 투고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3. 발간일: 3/6/9/12월 말일(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4.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최대 150매 이하)

5. 원고접수: 투고규정(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참고하여 작성 후,
JAMS 온라인투고(<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6. 투고자가 지불하는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는 없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인 경우에만 100,000원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02-3700-07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투고 바랍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께는 논문집을 발송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30,000원/일반회원: 50,000원/기관회원: 10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